

열: 변: 재
세 남자의 합창이야기

을숙도소묘 리



2011. 11. 22(화) 오후 8시

을숙도 문화회관 소극장

주 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 관 : 작곡모임 잉태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BSF 부산문화재단

부산원음방송 Home plus 홈플러스 장림점 팝부산 사하인터넷뉴스

(사)부산음악협회

열: 변: 재
세 남자의 합창이야기

을숙도소묘 리

연주곡목



자갈치의 아침
가을편지
능소화
임에게

을숙도의 겨울 손님
십자가의 나무꾼
을숙도



을숙도 소묘
안개비 그날처럼
그리움
초록세상



을숙도 갈대밭
누가 나를
다시오지 못하는 바람
편지

조규옥 작시 최석태 작곡
성수자 작시 권오철 작곡
선 용 작시 송필석 작곡
대 우 작시 백승태 작곡

이영애 작시 성해랑 작곡
정끝별 작시 구영림 작곡
서태수 작시 문지은 작곡

오승희 작시 백승태 작곡
소상보 작시 송필석 작곡
정영자 작시 최석태 작곡
정영자 작시 최석태 작곡

최상운 작시 최석태 작곡
한미성 작시 권오철 작곡
송필석 작시 송필석 작곡
선 용 작시 백승태 작곡

세남자의 합창 이야기

느낌!

첫 번째 남자 이야기 권오철



더운 거리를 나는 하염없이 걸어간다.
단지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볼 것이 많아서 이고
눈으로 확인되어 지는 것들을 상상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자주 스쳐 지나간다.
걸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의 환경이다.
계절마다에 느껴지는 것들이 다르듯이 보이는 것들도 다르다.
여름의 좋은점이라면 역시 보여지는 것이 더 (^_^)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고 몸이 젖어드는 쾌감이야 말로
그 어느것에 비하리오, 많은 인생의 흐름을 본다.
강을 흘러가듯 시간의 강을 타고 흘러가는 이들...
나는 뱃사공이 되는 착각을 잠시 한다.
저 많은 군상들을 나의 손에 움켜쥐고 나는 군주가 된다.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에 또 길을 재촉한다.
길이라는 느낌이 좋다.
한발 한발 나아갈때 되돌아보면 내 노력 만큼 온 것에 대해
대견하다.
열오르는 몸을 이끌고 내가 가는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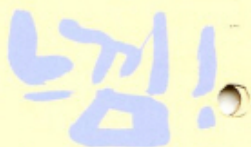
세남자의 합창 이야기

느낌!

두 번째 남자 이야기 백승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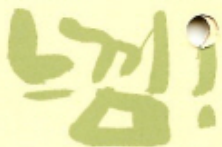
웅기총기 모여!
웅기총기 모여 앉아있네!
내 마음도 저 산 넘어 웅기총기 앉아볼까?
바람타고 한들한들 풀잎노래 들으며
꽃구름을 우산 삼아 바람타고
한들한들 구름 꽃 우산 받쳐 들고
새소리 들어볼까?
바람소리 들어볼까?
이내 마음 바람타고
저 산 넘어 앉아볼까?
바람꽃을 벗 삼아
풀잎 노래를 들으며
한 생각 한마음 바람 속에
한 생각 한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세.



세 번째 남자 이야기 최석태

☆아니 벌써 열번째 □흙... 번째라...△ 이제...번째라 ○언자 첫번째라...

☆ □ △ ○...
사는 것이 바빠 나는 알지 못하네...
오선지의 사랑을 ...
사는 것이 무언지를 나는 알지 못하네...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사랑의 의미를 나는 알지 못하네...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아서...
네번째의 의미를 나는 알지 못하네...
이게 끝이 아니기에...



네 번째 남자 이야기 송필석

노을이 물드는 강가

김해 조만포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하얀 갈대잎의 반짝임에 눈을 가늘게 뜨고 시아 -하며 흐르는
빠른 유속 위에 눈을 고정시키면 내 몸도 따라 흘러가는 것만 같다.

고니와 이름모를 새들이 모여 사는 저쪽 강둑을 지그시 바라보면
세상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 것도 같고 신선의 세계로 슬쩍 들어와
버린 것도 같다.

스산한 바람이 머리칼을 날리고 발그레 물드는 불을 감싸 안으며
그렇게 바라보는 조만포의 노을은 아름다웠다.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싶다.
옛날에 엮었던 동화책 처럼...
빨간 이층 벽돌집을 짓고 큰 창가에 서서 이 멋진 한옥의
수채화를 내려다 보며 살고 싶다.

따뜻한 커피 한잔과 낮은 첼로의 속삭임이 흐르면 더 좋겠지...



작곡 구영림

- 경성대학교 졸업
- 갈매산교합창단 지휘
- 부산청소년합창단 지휘
- 부산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위촉곡 수회 연주
- 창원보안관찰소 교사



작곡 문지은

- 경성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조교
- 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사무실장



작곡 성혜랑

- 신라대학교 재학



Tenor 장원상

- 한양대학교 음악대 성악과졸업
- 로마 신타체칠리아국립음악원 졸업
- 피렌체 피에졸리음악원 및 스페인 산피에고 데폰보스벨라음악학교 졸업
- 프랑크 빌 · 디브레 국립음악원과 니르르메이어 국립음악원 디플로메이션학위 취득



Piano 이승윤

- 고신대학교 졸업
- 부산시립합창단 반주자



■ 지휘자 전상철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 Course,
Accademia Romane delle Arti 합창지휘, 어린이합창지휘,
극장예술경영 Diploma, 부산학원연합회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역임,
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부산예중, 예고, 브니엘예고 중장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고신대학교 출강, 한국합창조직위원회 예술위원,
부산합창 연합회 사무국장, 부산음악협회 합창분과위원장,
부산콘서트 콰이어 상임지휘자

■ 부산시립합창단



1972년 창단된 합창단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 중의 하나다. 부산시립
합창단은 현재 전문 성악인 45명을 포함한 50여명의 단원이 최고의 합창
음악을 청중들에게 널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정기연주회와 특
별연주회, 해외 순회 연주회 등을 통해 합창음악 발전에 힘써온 부산시립합
창단은 특히, 1997년 호주와 뉴질랜드, 2003년 독일요청연주회 통해 광적
인 찬사를 받은바 있다.

또한, 부산시립합창단은 합창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1994년부터 일반 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0장의 음반을 출판했는데, 제1집 이승윤의 '봄을
위한 환상곡' 전곡을 비롯 오미라 남성 합창, 성가곡으로 제2집 '한국가곡과 민요 그리고 창작곡', 한국 가곡을 합창곡으로 부른 제3집, 이상
근의 '한국의 꽃'을 비롯 김청국, 이관용, 박재수님의 창작곡을 수록한 제4집, 세계 성가곡을 오르간 반주로 불러 성가합창부문 최고로 인정받
은 제5집 '주 이들을 찬양해', '헨델의 불후의 명작인 오라토리오 '메시아' 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반주로 합창단 발제, 하이라이프를 출판한 6
집,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반주로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합창의 세련미와 함께 어우러진 제7집 '한국가곡 대한창곡 모음', 부산음악 합창의 저
변 확대를 위해 지역작곡가 등의 곡만을 모아서 실황으로 출판한 제8집 '부산창작합창곡모음'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제9집
'메리크리스마스'를 그리고 제10집'도 한송이의 너의 모란'을 출판하여 우리음악계에 화제를 낳았다.

을숙도의 가을 손님

작시 이영애

올해도 잊지 않고 대꽃 출렁이는 모래섬 물별사이로
찾아온 고니 식구들 강따라 굽이굽이 하늘길 휘이휘이
병어리 뱃사공이 노졌던 강가에서
두 날개 활짝 펴고 곤곤곤 입맞추네
아 - 여기는 사랑이 꽃미는 을숙도
아 - 여기는 사랑이 꽃미는 을숙도
조용하고 따뜻한 세들의 천국
조용하고 따뜻한 세들의 천국이다.
세들의 천국이다.

을숙도 수모

오승의 작시

한가한 바람소리
강심에 잠기우고
철새들 무리지어
하늘을 쫓고 가면
을숙도 갈대 바람은
어떻게 떨고 섰다

출렁이는 강물 따라
부서지는 산 그림자
찾잔에 잠긴 달을
벗어여 지내 일레
철따라 찾아온 나그네
꿈을 춤는 을숙도

을숙도 가을 대밭

작시 최상운

설움과 절대 고독이
그림자 처럼 따라 다니는
을숙도 갈대밭
나에게는 더 없는 안심처였네
깎지 미고 팔베개로 만듯이 누워
아한 갈꽃 사이로 보이는
파아란 하늘 응시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눈은 축축이
축축이 젖어 있었네
한과 번뇌와 울분을 씻어내는
낙동강 을숙도 갈대밭
그것은 나에게
감성적인 로망의 공간이었다.